



# 산지 돼지, '육가공업체'에 가장 많이 출하된다

## - 가축 및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

양축농가의 생축 출하처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돼지는 육가공업체로 출하하는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농림부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를 통해 조사한 '가축 및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' 결과 양축농가의 생축 출하처와 관련, 종전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 계열화와 도축장시설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'육가공업체'나 '계열업체'를 통해 출하하는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양돈농가 비육돈 출하 육가공업체 가장 많아

특히 돼지는 가격결재 등을 신뢰하기 때문에 육가공업체로 출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생돈의 유통경로는 육가공공장이 58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산지조합이 22.1%, 가축시장 10.8%, 중간상인 8.4%로 조사됐다.

이와 관련 농림부는 모든 축종이 도축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, 일선 지도기관에서 소, 돼지의 경우 1~2단계의 거래경로를 축소할 수 있도록 출하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. 특히 축산물이 도축·가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전체대비 돼지는 21.5%가 '중간유통업

체'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, 육가공업체와 소매단계 간 직거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.

### 북미산 돈육 수입 증가세

'05년도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미국 24.9%, 칠레 14.6%, 캐나다 11.6% 프랑스 10.5% 순으로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, 상대적으로 유럽산 수입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북미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가 수입품목을 돼지고기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### 소비자, 삼겹살, 목심 등 선호도 80%에 이르러

또한 소매단계에서 돼지고기 판매처로는 가정(정육점 자체) 등에 72.8%, 요식업체에 23.6% 및 대량급식처가 3.6%를 차지했으며,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부위별 구입비율은 삼겹살이 53.6%, 목심 21.8%, 갈비 4.4%로 79.8%를 차지하고, 기타 저지방 부위로 전지 11.4%, 안심 1.7%, 등심 3.8%, 후지 3.3%를 각각 차지했다. **인문**